

『協吉通義』 本原一의 曆律에 대한 분석

권영수*, 김기승**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동양학과

An Analysis on the rule of the Calendar(曆律) in 『Hyupgiltongui』 Bonwon chapter one

Yung-soo Kwon*, Ki-Seung Kim**

Dept. of Oriental Study, University of Brain Education

요 약 역법(曆法)은 역대 왕조마다 매우 중대한 관심사였다. 조선시대 『협길통의』에는 역법과 관련된 많은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협길통의』 본원1에서 보여주는 고대 역률은 선택(選擇)과 간명(看命)에 필요한 역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의 의미가 있다. 따라서 『협길통의』의 바탕이 되는 『협기변방서』, 『상길통서』, 『천기대요』 등을 비교분석하여 사주간명과 실생활에 활용될 수 있는 역법과 역서의 근본원리가 되는 역률을 분석하고자 한다. 사주명리학이란 간지(干支)의 결합에 의한 시간변화의 이치를 깊이 연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역법은 연월일시를 세우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이를 위해 『협길통의』에서는 십간·십이지, 사서(四序), 육진(六辰), 갑력(甲曆) 등과 같은 간단한 간명구성원리(看命構成原理) 뿐만 아니라 28수(宿)와 같은 별자리를 활용하는 등의 사주명식(四柱命式)을 세우기 위한 기본원리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역률이 빚어내는 결과의 한계가 있음에도 사주간명이 과학이 아닌 술법으로 보아 길(吉)한 것을 찾아가는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무시할 수만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주제어 역률, 역법, 사주, 명리학, 선택

Abstract The Calendar(曆法) has been a very important concern in every dynasty of history. 『Hyupgiltongui』 written in the Joseon Dynasty included many contents related to the Calendar. In particular, the ancient rule of the Calendar(曆律) shown in the text of 『Hyupgiltongui』 Bonwon chapter one is meaningful in the process of creating the necessary Calendar for selection and reading fortune. Accordingly, we tried to analyze the rule of the Calendar(曆律) that is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the Calendar(曆法) and the almanac which can be used in real life, based on comparative analysis of 『Hyupgibyebangseo』, 『Sanggiltongseo』 and 『Cheongidaeyo』, which are the basis of 『Hyupgiltongui』. Saju Myung-ri is the scheme of time change by the combination of Ganji (Celestial Stems). Therefore, the core of the calendar system is to make four pillars by the year, month, day, and time. For doing this, 『Hyupgiltongui』 provides basic principles and materials for making four pillars using constellations like 28 Fixed Stars, as well as does simple composition principle for telling fortune such as Ten Celestial Stems, Twelve Zodiac Signs, the order of four seasons(四序), Yukjin(六辰) and Sexagenary Cycle (甲曆). However, despite the limitations of the results produced by the rule of the Calendar(曆律), we came to the conclusion that if reading fortune in Saju(四柱簡明) is to find good one(吉) in terms of understanding it as the rule of predicting future(術法) not science, its usefulness cannot be ignored.

Key Words the rule of the Calendar(曆律), the Calendar(曆法), Saju, Myeongri, Choice

Received 14 Jan 2021, Revised 22 Jan 2021

Accepted 27 Jan 2021

Corresponding Author: Ki-Seung Kim

(Professor, Department of Oriental Study, University of Brain Education)

Email: kbs4984@hanmail.net

ISSN: 2466-1139(Print)

ISSN: 2714-013X(Online)

© Industrial Promotion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전통시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 천문학은 제왕 지학으로 인식되었으며, 특히 역법과 역서에 대한 연구는 정치·문화·과학적 속성 외에도 과거인들의 시간 및 공간개념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주제였다. 즉 한국 천문학의 꽃은 역법(曆法)이었고, 그 역법을 실생활과 관련하여 구현한 것이 역서(曆書)였다.

『협길통의』 본원1에서 보여주는 고대 역률(曆律)은 선택(選擇)¹⁾과 간명(看命)에 필요한 역법을 만들어 가는 과정의 의미가 있다. 선택과 간명의 학문인 사주명리학은 간지의 결합에 의한 변화의 이치를 깊이 연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역법은 사주(四柱)를 구성하기 위한 연월일시를 세우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이를 위해 『협길통의』에서는 십간·십이지, 사서(四序), 육진(六辰), 갑력(甲曆) 등과 같은 간단한 간명구성원리 뿐만 아니라 28수와 같은 별자리를 활용하는 등의 사주 명식(命式)을 세우기 위한 기본원리나 자료가 상세하게 소개되고 있다.

역법과 역서에 관한 연구로는 정성희(2006)²⁾의 연구보고서가 있다. 이는 한국의 전통시대 천문학 분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역법과 역서를 바탕으로 그에 나타난 시간체제 및 천문 인식, 이어서 태양력 발행 이후 역서에 나타난 근대성을 규명하는 것이었다 [1]. 전용훈(2011)³⁾은 정조대의 역법에 중점을 두면서 그 역사적 발전과정을 살피고 천세력의 제정과 『협길통의』 편찬까지의 과정과 그 의의를 논하였다 [2]. 김기승·나혁진((2017)⁴⁾의 연구에서는 천문이 인간에게 준 도구로써 역법을 고찰하고 중국과 한국의 역법 변천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모두 역률 자체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과 분석은 이뤄지고 있지 않다 [3].

2. 역률(曆律)에 대한 분석

역법과 역서를 마련하기 위한 역률로는 크게 연월일시, 28수, 간명구성원리가 있다. 차례대로 살펴본다.

2.1 연월일시(年月日時)

연월일시는 사주 명식(命式)을 세울 때 가장 기본이 된다. 먼저 연(年)을 뽑을 때 문제점이 있다. 만세력(萬歲曆)은 정확한가이다. 음력·양력의 문제가 있고, 과거절과 미래절의 문제가 있다. 이것은 입춘(立春)을 기준으로 입춘전이면 전년(前年)으로 입춘후면 신년(新年)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 시작한 것은 최근(1963년)의 일이다. 『사주정설(四柱精說)』의 한 부분을 인용한다.

“구년(舊年)과 신년(新年)의 구별은 정월 초하루를 표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입춘(立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고로 다 같이 1953년에 출생하였더라도 입춘 전에 출생할 때는 년지(年支)는癸巳가 아니라 1952년의 간지인 壬辰이 된다. 입춘은 양력에 의하면 대체로 2월 4일이나 때에 따라서는 전후 일양일의 차이는 있다. 또 같은 입춘 당일에 출생한 경우라도 그 해의 간지를 쓸 것인가 그 전해의 간지를 쓸 것인가는 입춘 절입의 시각에 의하여 결정된다. 만약 오후 3시에 절이 바뀐다면 3시 전에 출생한 사람은 입춘일에 출생하였더라도 전년의 간지를 쓰게 된다. [4]”⁵⁾

역법은 연월일시(年月日時)가 다 들어있는데, 문제는 해와 달을 맞추는 것이다. 오행까지 맞추면 가장 좋은 역법이 될 것이다. 해가 한 바퀴 도는 것과 달이 열두 바퀴 도는 것이 맞아 떨어지면 역법은 그것으로 끝이 난다. 그러나 음력으로 큰달은 30일로 12달이면 365일이다. 작은달은 29일로 12달이면 6일이 빠진 354일이 된다. 즉 11일의 차이가 생긴다. 지구가 기울어 해가 적도(赤道)⁶⁾를 도는 게 아니고 기운 쪽 적도를 돈다. 제대로 돌면 360도가 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해 절기(節氣)가 나왔다. 15도마다 한 절기를 두었다. 따라서 일 년은 24절기이므로 360도가 된다. 그런데 실제 태양은 365도 황도로 가는데, 우리가 보는 것은 360도 황도로 가는 것이다. 5도가 빠져 있으니 처음부터 잘못됐다. 이러한 역법으로 명(命)을 보면 심하게는 거짓말을 하는 꼴이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이 3원론(三元論)의 등장이다.

“조선은 상원(上元)을 세종 갑자년 즉 1444년(세종 26)으로 정하였다. 상원이란 중원과 하원 등 각 60년씩

1) 택일(擇日), 택길(擇吉)과 같은 의미로 혼용된다.

2) 정성희, 「전통시대 역에 나타난 시간 인식과 근대성」, 대전, 한국연구재단, 2006.

3) 전용훈, 「정조대의 역법과 술수학 지식: 천세력과 협길통의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54, 서울대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1.

4) 김기승·나혁진, 『명리학사』, 서울, 다산글방, 2017, 66~70쪽.

5) 백영관, 『사주정설』, 서울, 명문당, 1985, 30쪽.

6) 구면천문학에서는 지구의 적도면을 천구(天)에까지 연장했을 때 생기는 가상의 원을 천구의 적도라고 한다. 천구상의 태양의 궤도는 황도(黃道)라고 한다. <두산백과>

180년 단위의 처음을 말한다.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동지 야반’이 상원의 조건으로 달리 ‘역원’이라고 한다 [5].”⁷⁾

결국 해가 뜨고 달이 도는 출발점이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있는 역법이어야 한다. 대체로 해는 아침에 떠 저녁에 지고, 달은 보름 이후에는 밤에 떠 아침까지 간다.

연월일시가 역법에 의해 정해지려면, 그 핵심은 해와 달이 만나는 달, 더 중요한 것은 해와 달 그리고 오행이 다 만나야 된다. 그 때면 최고 좋은 날 즉 4인검(四寅劍)⁸⁾이다. 자시(子時)는 하늘이 움직이는 시간이고, 축시(丑時)는 땅이 움직이는 시간이며, 인시(寅時)는 사람이 움직이는 시간이다. 인월(寅月)부터의 계산은 여기에서 나온다. 사람이 4인시에 태어나면 최고의 사람이 된다. 장례식의 발인(發靛)은 땅이 움직이는 것이므로 축시에 해야 한다.

해와 달이 합칠 때 즉 합삭(合朔)⁹⁾시 좋은 일이 생긴다. 3합론, 육합론, 국(局)의 논리가 여기에서 출발한다. 또 최종적으로 출발한 날이 3원사상(三元思想)이다. 3원사상은 명(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대(漢代)의 3명(命)¹⁰⁾은 송대의 3원(元)으로 대체되어, 해와 달이 같이 가는 상원, 중원, 하원 중 어느 때에 태어났는가가 중요하게 되었다.

연월일시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니었다. 해와 달이 맞는 것이 언제부터인가를 따져서 나의 명을 알아봐야 한다. 그런데 서양의 역법은 부활절(復活節)¹¹⁾을 맞추는 것에 초점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가 하면 동양에서는 농사와 조수간만(潮水干滿)에 큰 관심을 가졌다. 농사는 생산이므로 생산은 달(月)이 한다고 생각했다. 이 개념의 확장으로 월(月)은 윗대에서 나(日)를 생

산해내는 것으로, 시(時)는 나의 자식으로 보게 된다. 『삼명동회』에도 이렇게 안 되어 있는 것 등을 보았을 때, 이런 해석은 그리 오래된 것이 아니다.

연월일시가 언제부터 만났는가. 연(年)과 일(日)은 해가 돌아다니는 것이고, 월(月)은 달이 돌아다니는 것이며, 시(時)는 밤과 낮이 돌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연(年)과 월(月)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을 맞추려는 노력은 언제부터인가. 연월일시가 모두 등장하여 맞추려는 노력은 동한(東漢) 이후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귀곡자(鬼谷子)나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에는 역법이 없었다고 봐야 한다. 정확한 천문학도 아니었다. 예전에는 연(年)을 지배하는 것이 태양이 아닌 목성(木星)이었다. 목성은 세성(歲星)으로서 연(年)을 지키는 신(神)이었다. 따라서 신을 거부하거나 대항할 수 없으며 만약 그러한 경우에는 벌을 내리게 된다. 이러한 습관이 남아 있는 것이 이른바 ‘신살론(神殺論)’이다. 신살론은 『협기변방서』의 전신이랄 수 있는 『성력고원(星曆考原)』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 왕들 역시 천명을 대신하는 자로 천관(天官)의 1년 단위로 직영을 하였고 역법 또한 국가독점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세성의 프레임(frame)은 태양의 프레임으로 바뀌었다.

달(月)은 큰달과 작은달이 있어 맞지 않으므로 이를 맞추려는 노력이 합삭(合朔)을 길(吉)한 날로 보아 제사나 옷 만드는 일을 하였다.

일(日)을 12시로 본 것은 언제부터인가. 진시황의 분서갱유 이후 『한서문예지』에서 고전적(古典籍)을 복원하려 노력했으나 아직 시간의 보편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연월일시를 맞춘 것은 당대(唐代)부터로 봐야 한다. 당시 사주는 연(年)으로 봤다. 더불어 입태월(入胎月)도 중시했다. 밤과 낮이 움직이는 시(時)는 동지(冬至)와 하지(夏至) 때가 다르다. 동지 때의 밤길이가 6 이라면 낮 길이는 4 정도가 되고 하지 때는 정반대이다. 그러나 하루를 일률적(平期式)¹²⁾으로 2시간씩 배분하고 지장간(支藏干)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애초부터 잘못된 출발이다.

역법은 천·지·인을 대하는 것인데, 하늘은 간(干)으로 땅은 지(支)로 대응시킬 수 있었지만, 지(支) 속에 하늘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시계가 없었던 시기

7) 구중회, 『한국 명리학의 역사적 연구』, 서우, 국학자료원, 2016, 77쪽.

8) 사인검(四寅劍)은 조선시대에 임금의 지시에 의해 국가사업으로 제작하였던 칼인데, 12간지의 인(寅)이 4번 겹치는 때 즉 인년(寅年), 인월(寅月), 인일(寅日), 인시(寅時)를 택해 타조(打造)하였다. 그것은 호랑이의 위력을 빌려 사귀(邪鬼)를 물리침으로써 왕실과 궁중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했던 것이다.

9) 해와 지구가 달을 중간에 두고 일직선이 되어 달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이때 달은 태양과 함께 뜨고 지며, 지구에서 보았을 때 달의 뒷면만 햇빛을 받으므로 지구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10) 수명(壽命), 조명(遭命), 수명(隨命)을 말한다.

11)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축일, 춘분(春分) 뒤의 첫 만월(滿月) 다음에 오는 일요일이다. 부활 주일부터 일주일 또는 50일 동안의 기간.

12) 24절기의 각 기(氣)의 일시를 정하기 위하여 태양의 황경(黃經)에 따라 1년을 24등분해 24절기로 나눈 역법(曆法).

에 이를 세분하려는 것이 지장간(支藏干)이다. 본래 연월일시의 역법은 해와 달이 출발을 같이 할 때 좋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사주의 연월일시를 더 세밀하게 8개로 나누게 된다. 즉 연의 천간과 지지, 월의 천간과 지지, 일의 천간과 지지, 시의 천간과 지지가 그것이다. 그러나 맞지도 않는 도구로 명(命)을 본다면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주(四柱)를 구성하는 간지(干支)나 절기(節氣)는 모두 360일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계가 나온 오늘의 시점에서 동일한 의문을 갖게 된다. 다만 사주간명이 과학이 아닌 술법으로 보아 길(吉)한 것을 찾아가는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무시할 수만은 없다.

2.2 28수(宿)

고대 그리스에서는 태양이 매달 머무는 곳의 별자리 12개를 선정하여 황도(黃道) 12궁이라고 하였다. 『회남자(淮南子)』 「천문훈(天文訓)」에는 서양의 황도 12궁에 대응되는 별자리로서 달이 움직이는 길인 28수가 나온다. 28수는 하늘에 정한 네 방위에 달의 이동에 맞추어 동궁(東宮), 북궁(北宮), 서궁(西宮), 남궁(南宮)의 순서대로 각각에 7수씩을 할당하여 신비스러운 동물로 형상화한 것이다. 동쪽은 각(角)·항(亢)·저(氐)·방(房)·심(心)·미(尾)·기(箕)로 구성되어 청룡(蒼龍)을 형상화하였고, 북쪽은 두(斗)·우(牛)·녀(女)·허(虛)·위(危)·실(室)·벽(璧)으로 구성되어 현무(玄武)를 형상화하였다. 또한 서쪽은 규(奎)·루(婁)·위(胃)·묘(昴)·필(畢)·자(觜)·삼(參)으로 구성되어 백호(白虎)를 형상화하였고, 남쪽은 정(井)·귀(鬼)·류(柳)·성(星)·장(張)·익(翼)·진(軫)으로 구성되어朱雀(朱雀)를 형상화하였다.¹³⁾

『협길통의』에서는 28수배일(宿配日)에 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고원(考原)에 이르기를, 날짜에 60일이 있고 성수(星宿)는 28개가 있으니 420일이면 일주(一週)가 된다. 420은 60과 28의 최소공배수이다. 그래서 칠원설(七元說)이 있다. 일원갑자(一元甲子)는 허(虛)에서 일어나는데 자상(子象)은 쥐(鼠)이니 허(虛)는 일서(日鼠)이다. 이원갑자(二元甲子)는 규(奎)에서 일어나고, 삼원갑자(三元甲子)는 필(畢)에서 일으키고, 사원갑자(四元甲子)는 귀(鬼)에서 일어나고, 오원갑자(五元

甲子)는 익(翼)에서 일어나며, 육원갑자(六元甲子)는 저(氐)에서 일으키고, 칠원갑자(七元甲子)는 기(箕)에서 일으켜 칠원(七元)이 다한 후에는 또 갑자(甲子)를 허(虛)에서 일으켜 돌아가면서 시작을 반복한다. 그러나 일원(一元)이 어느 연월일(年月日)에 일어나는지를 자세히 알 수는 없다.

“일월오성(日月五星)은 28사(舍)를 운행하는데, 느리고 빠름이 일정하지 않고 운행하는 궤도도 각각 다르다. 이는 이리저리 엿갈려 뒤섞이는 것 즉 오래 머무르거나 거꾸로 숨는 등으로 그 차이를 낳게 한다. 역법(曆法)의 시원으로 추산하게 해봐도 반드시 갑자(甲子) 연월일시(年月日時)에 있어야 한다. 일(日)은 허(虛)에 있고, 월(月)은 위(危)에 있으며 오성(五星)은 그 다음으로 실(室), 벽(璧), 규(奎), 누(婁), 위(胃)에 머무른다. 그러나 작은 달은 그 도수를 지나치게 된다. 어찌 묘(昴)에서 귀(鬼)까지를 헤아려 얻을 수 있으며 또 순서대로 그 배열을 할 수 있겠는가. 천행(天行)이 고르지 아니하므로, 관찰해보면 성사(星舍)가 일정하다는 것은 절대로 없는 이치이다. 칠정역(七政曆)으로써 어떻게 28수에 서로 배속시키는 법을 얻을 수 있겠는가. 여러 책을 두루 열람해 보아도 자세히 살펴 연구할 수는 없다. 마침내 서역의 『길흉시일선악수요경(吉凶時日善惡宿曜經)』을 보고 그 설(說)을 얻는다. 대개 저 나라는 십간십이지의 이름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28수를 기일(紀日)로 사용하는데, 그 칠정을 28수에 가(加)하는 것을 마치 천간을 지지 에다 가(加)하는 것처럼 하고 있다. 그러나 칠정의 결과로 이 별자리(28수)의 궤도를 배속하는 법은 말하지 않았다. 또 그 술수로는 사람의 생일로 어느 요일 어느 수(宿)가 본명(本命)인가로 명수(命宿)를 삼고 행사(行事)하는 일을 가하고 요수(曜宿)를 섞어 명(命)의 길흉(吉凶)을 살핀다 [7].”¹⁴⁾

14) 『協吉通義』卷一 十二辰二十八宿配日, 日月五星運行二十八舍遲速不齊 躔次各別 交錯參差 遲留伏逆. 縱使推之曆始 必有甲子年月日時. 日在虛 月在危 五星以次居室壁奎婁危者. 然少選月即過其度矣 且安得又從昴至鬼 復順次而列之哉. 以不齊之天行 按一定之星舍 乃萬無之理也. 七政安得與二十八宿相配耶. 徧開群書 莫可考究. 及見西域 吉凶時日善惡宿曜經 乃得其說. 蓋彼國不知十干十二支之名而用二十八宿以紀日 其七政加二十八宿 猶干之加於支 非謂七政之果躔於此宿也. 又其術以人之生日所逢何曜何宿爲本命 謂之命宿 而以加於行事所逢曜宿 參伍次之 以命凶吉. 又以宿曜性情合所爲之事之剛柔健順以定從違. 亦有似於中國之建除星命家言者. 其宿曜之名虛昴星房屬日 危畢張心屬月 室觜翼尾屬火 壁參較箕屬水 奎井角斗屬木 婁鬼亢牛屬金 胃柳氏女屬土 則各從其國語. 假如

13) 문지은, 「고대중국인의 우주관과 28수의 정립」, 충북대 석사학위논문, 2010, 20쪽.

중국에서 달의 공전주기가 27.32일이라는 것에 착안하여 적도대(赤道帶)를 28개의 구역으로 나눈 것으로, 각 구역이 각각의 수(宿)이다. 성수(星宿)라고도 한다. 달이 매일 유숙하는 곳이라는 뜻에서 유래한 말이다. 28수의 유래는 분명하지 않으며, 수많은 역법 중의 하나이다. 12진법(進法)이 있으면 그 활용도는 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28수를 달의 운동과 연관 지어 생각한다면 달이 머무는(宿) 하늘이 바로 그 수(宿)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고대이나 지금이나 월령(月令)과 달이 위치한 수(宿)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점(占)을 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수궁이 갈 만하다. 또 열두 달로 열두 시를 만들어 내듯이, 별(28수)로 이것을 만들어 낼 수 있겠으나 날짜로는 잘 맞지 않으므로 이러한 이론은 오래가기 어렵다. 오늘날과 같은 시계가 없었을 때는 하늘에 뜬 해와 달, 별을 보면서 동서남북 방향과 시간을 알 수 있었다. 12시라는 것을 바탕으로 오전(午前)과 오후(午後)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한 낮을 일중(日中)이라 하였다.

또 28수에 열두 동물을 배속하는 것과 관련하여, 『여해집(蠡海集)』에서 십이지(十二支)의 띠 배치를 두고 설명한 것에 대하여 “세상에는 온갖 물건이 많고 많은 종류인데 어찌 이 십이종으로만 특정되겠는가? 하물며 의미와 이치가 없는 것까지 믿기는 부족하다”는 평가에 대하여 『협길통의』에서는 공감을 표한다.

『천기대요』에서는 12궁(宮), 12수명(獸名), 28수(宿)를 ‘십이궁항성소속(十二宮恒星所屬)’으로 설명한다. 즉 지지12궁(子丑寅卯辰巳午未申酉戌亥)에 28개별자리(각(角)·항(亢)·저(氏)·방(房)·심(心)·미(尾)·기(箕)·두(斗)·우(牛)·여(女)·허(虛)·위(危)·실(室)·벽(壁)·규(奎)·루(婁)·위(胃)·묘(昴)·필(畢)·자(觜)·삼(參)·정(井)·귀(鬼)·유(柳)·성(星)·장(張)·익(翼)·진(軫))과 12수명(鼠牛虎兎龍蛇馬羊猴鷄狗猪)을 붙인 것이다 [13].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子-女(土) 虛(日) 危(月)-鼠(쥐), 丑-斗(木) 牛(金)-牛(소), 寅-尾(火) 箕(水)-虎(범), 卯-氏(土) 房(日) 心(月)-兎(토끼), 辰-角(木) 亢(金)-龍(용),

巳-翼(火) 軫(水)-蛇(뱀), 午-柳(土) 星(日) 張(月)-馬(말), 未-井(木) 鬼(金)-羊(양), 申-觜(火) 參(水)-猴(원숭이), 酉-胃(土) 昴(日) 畢(月)-鷄(닭), 戌-奎(木) 婁(金)-狗(개), 亥-室(火) 壁(水)-猪(돼지). 간략한 서술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게 하였다.

2.3 간명구성원리

『협길통의』 「본원」에서 다루고 있는 10간·12지, 4서(四序), 6진(六辰), 12월벽괘(辟卦), 28수(宿), 갑력(甲曆) 등은 명리학 원리의 기초재료이자 더 크게는 술법(術法)을 만들기 위한 기초공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간명구성원리(看命構成原理)’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연월일시를 구하기 위한 역법(曆法)에 관련된 내용이다.

2.3.1 십간·십이지(十干·十二支)

채옹(蔡邕)¹⁵⁾의 『독단(獨斷)』에서 말하기를, 간(干)은 줄기를 말한다. 그 이름은 열 개로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이다. 지(支)는 가지로 그 열둘의 이름은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이다 [7]. 기본적인 개념구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우주의 삼재(천지인)를 음양오행으로 구체화한 것이며 수학의 10진법, 12진법, 60진법과의 상관성을 보인다.

『예기(禮記)』¹⁶⁾ 월령(月令)편에서, 춘월(春月)은 그 날짜가 갑을일(甲乙日)이고, 하월(夏月)은 丙丁, 중앙토(中央土)에서는 戊己, 추월(秋月)은 庚辛, 동월(冬月)은 壬癸가 그날이 된다.

『협기변방서』에서는 십간·십이지, 십이율(十二律), 이십팔사(二十八舍)를 설명하고 있는데, 『협길통의』에서는 십간·십이지만 인용하고 있다. 오늘날까지 활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기초이론이다. 십이율(十二律)은 1옥타브의 음역을 12개의 음정으로 구분하여 각 음 사이를 반음 정도의 음정차로 율을 정한 것으로, 중국 주(周)

日曜太陽在回鶻則曰密 在波斯則曰曜森勿 在天竺則曰阿你底耶 重譯之即中國之日也。其他皆倣此。七元周而復始 恰與此相符。其書又謂 中國 西天諸國此法並所通行。今按 曆家每歲鋪注于六十甲子載在時憲書 而無所用 神殺中惟伏斷 暗金二者從此起例 其他並不關涉。然外域既以此紀年 則曆家存此可使節域殊方同曉某日時何甲子甚爲有益 良不可廢也。

15) 중국 후한의 학자·문인·서예가(132~192). 조정의 제도와 칭호에 대하여 기록한 《독단(獨斷)》, 시문집 《채중량집(蔡中郎集)》이 있다. 또 비백체(飛白體)를 창시하였다.

16) 《예기》는 5경(五經)의 하나로 예의 이론 및 실재를 논하는 내용이다. 총 49편으로 사서(四書)의 하나인 《대학(大學)》과 《중용(中庸)》도 이 가운데 한 편이다. 《예기정의(禮記正義)》는 후한(後漢)의 정현(鄭玄)이 주석하고, 당(唐)나라의 공영달(孔穎達)이 이를 해석하여 소(疏)를 단 것으로, 《예기》의 주석서로 통용된다.

나라 때부터 사용되었다. 음양(陰陽)의 원리에 따라 양을 상징하는 황종(黃鐘)·태주(太簇)·고선(姑洗)·유빈(蕤賓)·이척(夷則)·무역(無射) 등 홀수의 여섯을 육률(六律)이라 하고 또 음을 상징하는 대려(大呂)·협중(夾鐘)·중려(仲呂)·임중(林鐘)·남려(南呂)·응중(應鐘) 등 짝수의 여섯을 육률(六呂)라 한다. 이십팔사(二十八舍)는 이십팔수(二十八宿)로, 사(舍)는 해와 달이 머무는 곳으로 완만하게 기운을 펼치는 것이다. 12율과 28수는 번잡하고 중복되므로 여기서는 삭제하였다.

2.3.2 사서(四序)

寅卯辰은 木이요, 巳午未는 火이고, 申酉戌은 金이며, 亥子丑은 水이다 [7]. 위에서 말한 것은 영성(令星)¹⁷⁾ 즉 춘하추동의 오기(五氣)이다. 이는 십이지지(十二地支)와 오행(五行)의 관계로 사계절(四季節)을 설명한 것이다. 즉 일년 열두 달을 사계절로 나눠 설명한 것이며, 인간은 사계절이라는 우주의 순환 질서 속에 존재함을 일깨워 준다. 사서(四序)는 봄·여름·가을·겨울의 사계절 즉 사시(四時)를 말한다.

인간은 해와 달과 별들을 관찰하여 그 위치 변화로부터 계절과 방위와 나아가 시간의 규칙성을 찾아 자연의 변화에 대응하고 재난을 예방하고자 노력해왔다. 이러한 천문관측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사회의 중요한 의식과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일이었으며 역법(曆法)의 발달과 연구로 이어진다. 절기(節氣)는 이 역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위와 같은 계절의 변화가 농업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점과 절기의 흐름이 소우주인 인간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념이 사주명리학의 추명(推命)에 작용한 것이 조후론(調候論)이다 [3].

절기(節氣)는 한 해를 스물넷으로 나눈 계절의 구분을 말한다. 한 달에서 5일을 1후(候), 3후인 15일을 1기(氣)라 하고 이것이 기후(氣候)의 기초가 된다. 1년을 12 절기와 12중기(中氣)로 나누고 이를 보통 24절기라고 하는데, 절기는 한 달 중 월초에 해당하며 중기는 월중에 해당한다. 24절기는 입절(立節)에 해당하는 입춘(立春), 경칩(驚蟄), 청명(清明), 입하(立夏), 망종(芒種), 소서(小暑), 입추(立秋), 백로(白露), 한로(寒露), 입동(立冬), 대설(大雪), 소한(小寒)과 중기(中氣)에 해당하는 우수(雨

17) 월령(月令)이라고도 한다.

水), 춘분(春分), 곡우(穀雨), 소만(小滿), 하지(夏至), 대서(大暑), 처서(處暑), 추분(秋分), 상강(霜降), 소설(小雪), 동지(冬至), 대한(大寒)이다. 태양력에 의하면 절기는 매월 4~8일 사이에 오고 중기는 19~23일 사이에 온다. 천문학적으로는 태양의 황경(黃經)¹⁸⁾이 0도인 날을 춘분으로 하여 15도 이동했을 때를 청명 등으로 구분해, 15도 간격으로 24절기를 나눴다. 따라서 90도인 날이 하지(夏至), 180도인 날이 추분(秋分), 270도인 날이 동지(冬至)이며 춘분에서 하지 사이를 봄, 하지에서 추분 사이를 여름, 추분에서 동지 사이를 가을, 동지에서 춘분 사이를 겨울이라 하여 4계절의 기본으로 삼는다.

절기를 배치하는 방법으로는 평기법(平氣法)과 정기법(定氣法)이 있다. 평기법은 1년의 길이를 24등분하여 날짜 단위로 배치하다보니 절기간의 간격이 누적되어 중기가 없는 달이 생겨 윤달을 배치하게 된다(無中置閏法). 윤달은 보통 19년에 7번씩 들어간다(19년7윤법). 정기법은 서양천문학이 채용된 시헌력(時憲曆)¹⁹⁾에서의 절기를 배치하는 방법이다. 태양운행의 지속(遲速)으로 생기는 절기의 간격을 윤달로 배치하는데 있어서 평기법보다 더 큰 혼란이 생긴다. 24절기는 평기법과 정기법에 따라 절기 간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윤달을 배치하여 날짜와 계절을 조정하고 있지만, 태양력을 쓰는 오늘날에도 농촌에서는 관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15].

2.3.3 육진(六辰)

음양(陰陽)이 중심이 되어 열둘을 나누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사고는 남과 여, 해와 달처럼 무수히 많은 조합을 만들 수 있다. 子, 寅, 辰, 午, 申, 戌은 양(陽)이 되고, 丑, 卯, 巳, 未, 酉, 亥는 음(陰)이 된다. 십이지지를 음양으로 나눈 것이다. 이는 양이 양을 따르고 음은 음을 따르니, 여섯 개의 양은 네 개의 양괘(陽卦)를 받아들이고 여섯 개의 음은 네 개의 음괘(陰卦)를 받아들인다. 즉 육양진(六陽辰)은 사양괘(四陽卦)인 건(乾), 진(震), 감(坎), 간(艮)괘에 받아들이고, 육음진(六陰辰)은 사음괘(四陰卦)인 곤(坤), 손(巽), 리(離), 태괘(兌卦)에 받아들인다 [7]. 간지를 팔괘나 주역의 64괘에 확장함은 추명

18) 춘분점을 기점으로 하여 황도(천구상의 태양의 궤도)를 따라서 켜 각거리.

19) 서양 신부 탕약탕(湯若望) 등의 편찬으로 청나라와 우리나라(1653년부터 조선말까지) 등에서 사용되었던 역법이다. 천체의 자전을 부정하고 지구의 정지를 고집하고 있다.

을 하기 위한 것이다.

2.3.4 십이월벽괘(十二月辟卦)

십이월벽괘(十二月辟卦)는 십이괘를 음양으로 나누어 열두 달에 각각 배속한 것이다. 열두 달을 주역(周易)의 괘에 연결시키고 있다. 달(月)을 중심으로 보는 토정비결(土亭秘訣)의 기본이 된다. 1양은 복괘(復卦), 2양은 임괘(臨卦), 3양은 태괘(兌卦), 4양은 대장괘(大壯卦), 5양은 채괘(夬卦), 6양은 건괘(乾卦), 그리고 1음은 구괘(姤卦), 2음은 둔괘(遁卦), 3음은 비괘(否卦), 4음은 관괘(觀卦), 5음은 박괘(剝卦), 6음은 곤괘(坤卦)가 된다.

12월벽괘 이론의 원리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2월벽괘는 양(陽)이 처음 생겨나는 11월부터 시작한다. 11월의 괘는 하괘(下卦)에서 처음 일양(一陽)이 생기는 괘로 곤괘와 진괘로 구성된 복괘(復卦)이다. 12월은 임괘(臨卦), 정월은 태괘(兌卦), 2월은 대장괘(大壯卦), 3월은 택천괘(澤天卦), 4월은 대성괘(大成卦), 5월은 구괘(姤卦), 6월은 둔괘(遁卦), 7월은 비괘(否卦), 8월은 관괘(觀卦), 9월은 박괘(剝卦), 시월은 곤괘가 겹친 순음(純陰)의 괘인 곤괘(坤卦)이다. 11월에는 다시 일양(一陽)이 생겨난다. 이는 양이 생겨나 자라다 스러지면 음이 자라나 스러지는 즉 음양(陰陽)의 소장(消長)에 따른 달의 순서를 알 수 있다.

2.3.5 십이진이십팔수(十二辰二十八宿)

십이진(十二辰)은 자에서亥까지의 십이지(十二支)를 말한다. 십이지에 의해 시진(時辰)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되었다. 진(晉)의 두예(杜預)의 주(注)에는 야우(夜牛)·계명(鷄鳴)·평단(平旦)·일출(日出)·식시(食時)·우중(隅中)·일중(日中)·일질(日陞)·포시(晡時)·일입(日入)·황혼(黃昏)·입정(入定) 등의 이름이 있는데, 비록 십이지라는 이름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이미 십이지를 나누고 있다. 한(漢)에 와서 하루 밤낮을 십이시로 나누고 간지(干支)로 기록하였다. 그 뒤에는 또 십이시를 이십사시(二十四時)로 나누었는데, 자시(子時)를 자초(子初)·자정(子正) 등과 같이 구분하였다.²⁰⁾ 28수는 앞에서 살펴보았다. 오늘날과 같은 시계가 없던 시절에 그 유용성이 있겠으나 한계가 있다. 과거 이십팔수로 선

20) 김승동 편저, 『역사상사진』, 부산대인문학연구소, 부산대출판부, 1998.

택과 추명에 사용하기도 했지만 28일을 한 달로 보거나 28진법의 발전은 보지 못했다.

2.3.6 갑력(甲曆)

갑력에 대한 설명은 『협길통의』와 『협기변방서』에만 실려 있고 『상길통서』 등 다른 저서에서는 볼 수 없다. 현대 명리학 관련 저서에서도 쉽게 접할 수 없는 내용이다.

『주례(周禮)』²¹⁾의 십일(十日), 십이진(十二辰), 십이월(十二月), 십이세(十二歲), 이십팔성(二十八星)에 대하여, 정현(鄭玄)의 주(注)에서 말하기를 일(日)은 甲에서부터 癸까지를 말하는 것이고, 진(辰)은 子에서부터 亥까지를 말하는 것이다. 월(月)은 杼(陬)에서부터 塗(涂)까지를 말하고, 세(歲)는 섭제격(攝提格)부터 적분약(赤奮若)을 말한다. 성(星)은 각(角)에서부터 진(軫)까지를 말한다. 『이아(爾雅)』²²⁾에서는, 월양(月陽) : 양월(陽月)이 甲에 있으면 필(畢)이라 하고, 乙에 있으면 굴(橘)이라 하고, 丙에 있으면 수(修)라 하고, 丁에 있으면 어(圉)라 하고, 戊에 있으면 여(厲)라 하고, 己에 있으면 칩(則)이라 하고, 庚에 있으면 질(窒)이라 하고, 辛에 있으면 색(塞)이라 하고, 壬에 있으면 종(終)이라 하며 癸에 있으면 극(極)이라 한다. 월명(月名) : 정월은 杼(陬), 2월은 여(如), 3월은 병(病), 4월은 여(余), 5월은 고(皐), 6월은 조(朝), 7월은 상(相), 8월은 장(壯), 9월은 현(玄), 시월은 양(陽), 11월은 고(辜), 12월은 도(涂)라고 한다. 세양(歲陽) : 태세(太歲)²³⁾가 甲에 있으면 알봉(閼逢), 乙에 있으면 전몽(旃蒙), 丙에 있으면 유조(柔兆), 丁에 있으면 강어(強圉), 戊에 있으면 저용(著雍), 己에 있으면 도유(屠維), 庚에 있으면 상장(上章), 辛에 있으면 중광(重光), 壬에 있으면 현익(玄黓), 癸에 있으면 소양(昭陽)이 된다. 세명(歲名) : 태세(太歲)가 寅에 있으면 섭제격(攝提格)이라 하고, 卯에 있으면 단알(單閼), 辰에 있으면 집서(執徐), 巳에 있으면 대황락(大荒落), 午에 있으면 둔장(敦牂), 未에 있으면 협흡(協洽), 申에 있으면

21) 주(周) 왕실의 관직 제도와 전국 시대(戰國時代) 각 국의 제도를 기록한 책으로, 후대 중국과 우리 나라에서 관직 제도의 기준이 되었다. 『예기(禮記)』·『의례(儀禮)』와 함께 삼례(三禮)로 일컬어지며, 당대(唐代) 이후 13경(十三經)의 하나로 포함되었다.

22) 문자의 뜻을 고증하고 설명하는 사전적인 성격을 지닌 유교경전이다.

23) 그 해의 간지 또는 목성을 말한다.

군단(涇灘), 酉에 있으면 작약(作疆), 戌에 있으면 엄무(闔茂), 亥에 있으면 대연현(大淵獻), 子에 있으면 곤돈(困敦), 丑에 있으면 적분약(赤奮若)이라 한다 [7].

즉 고갑자(古甲子)²⁴에서 십천간(十天干)은 그 순서대로 알봉(闕逢), 천몽(旃蒙), 유조(柔兆), 강어(強圉), 저웅(著雍), 도유(屠維), 상장(上章), 중광(重光), 현익(玄黓), 소양(昭陽)이라 하고, 십이지지(十二地支)는 곤돈(困敦), 적분약(赤奮若), 섭제격(攝提格), 단알(單閼), 집서(執徐), 대황락(大荒落), 둔장(敦牂), 협흡(協洽), 군단(涇灘), 작약(作疆), 엄무(闔茂), 대연현(大淵獻)이라 한다. 위의 내용들은 명리원리를 구성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서의 의미가 큰 개념정의에 가깝다. 오늘날 그 명칭을 활용하기에는 번잡함과 현학적이거나 고서를 해독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역법과 역서의 전제가 되는 역률을 『협길통의』에서 제시하는 연월일시, 28수, 간명구성원리 등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연월일시에서는, 만세력은 정확한가에서부터 가장 좋은 역법을 만들기 위한 해와 달 및 오행의 조화를 분석하고 연월일시가 모두 등장하여 맞추려는 노력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맞지도 않는 도구로 명(命)을 본다면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 사주(四柱)를 구성하는 간지(干支)나 절기(節氣)는 모두 360일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계가 나온 오늘의 시점에서도 동일한 의문을 갖게 된다. 다만 사주간명이 과학이 아닌 술법(術法)으로 보아 길(吉)을 찾아가는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무시할 수만은 없다고 본다.

그리고 서양의 황도12궁에 대응되는 별자리로서 달이 움직이는 길인 28수는 하늘에 정한 네 방위에 달의 이동에 맞추어 동궁(東宮), 북궁(北宮), 서궁(西宮), 남궁(南宮)의 순서대로 각각에 7수씩을 할당하여 신비스러운 동물로 형상화한 것이다. 그러나 천행(天行)이 고르지 아니하므로 자세히 조사하여 살펴보면 성사(星舍)가 일정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치이다. 또 28수에 열두 동물을 배속하는 것과 관련하여, “세상에는 온갖 물건이 많고 많은 종류인데 어찌 이 십이중으로만 특정되

겠는가?” 라는 문제가 있음을 보았다. 28수를 한 달로 보거나 이를 토대로 간명을 하는 것은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살펴보았다.

또 본 연구에서는 간명구성원리 즉 『협길통의』 「본원1」에서 다루고 있는 십간·십이지, 4서(四序), 6진(六辰), 12월벽괘(辟卦), 28수(宿), 갑력(甲曆)이 명리학 원리의 기초재료이자 더 크게는 술법(術法)을 만들기 위한 기초공사로 오늘날에도 대부분 활용되고 있지만 그 원리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점을 분석하여 소개하는 점에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다만 오늘날 명리학이 술법만이 아닌 과학적 학문으로 자리매김 되기 위해서는 이상에서 살펴 본 역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현대과학을 활용한 추가적인 연구가 절실하다.

Referen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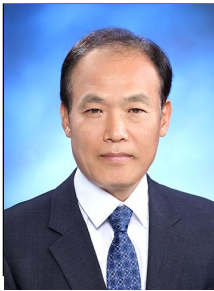
- [1] 정성희, 「전통시대 역에 나타난 시간 인식과 근대성」, 한국연구재단, 2006.
- [2] 전용훈, 「정조대의 역법과 술수학 지식:천세력과 협길통의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54, 서울대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1.
- [3] 김기승·나혁진, 『명리학사』, 431쪽, 서울, 다산글방, 2017.
- [4] 백영관, 『사주정설』, 286쪽, 서울, 명문당, 1985.
- [5] 구중희, 『한국 명리학의 역사적 연구』, 382쪽, 서울, 국학자료원, 2016.
- [6] 문지은, 「고대중국인의 우주관과 28수의 정립」,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7] 閔鐘顯, 『協吉通義(并附錄)』, 雲觀, 國立中央圖書館 電子冊., 1795.
- [8] 김승동 편저, 『역사상사전』, 1504쪽, 부산, 부산대 인문학연구소, 부산대출판부, 1998.
- [9] 成周憲 編著, 李勉雨 外 譯註, 『書雲觀志』, 479쪽, 서울, 소명출판, 2003.
- [10] 김기승 저, 『과학명리』, 494쪽, 다산글방, 2016.
- [11] 允祿 何國宗 梅穀成 著, 金志文 譯著, 『欽定協紀辨方書, 上中下』,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2011.
- [12] 魏明遠 著, 陳明 注釋, 『象吉通書, 上中下』, 北京,

24) 고대 중국에서 생긴 육갑(六甲)의 초기 이름

中醫古籍出版社..

- [13] 林紹周 原著, 池日賓 新增, 『詳譯 新增 參贊秘傳 天機大要』, 大韓曆法研究所譯編, 大地文化社, 1998.
- [14] 김동규 역, 『흠정사고전서 협기변방서 1,2,3부』, 서울, 명문당, 2018.
- [15] 구현식, 『협길통의의 명리·풍수 원리 연구』,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권 영 수 (Yung-Soo, Kwon)



- 2020년 2월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동양학과 (동양학박사)
- 2017년 2월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동양학과 (국학석사)
- 1989년 2월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 2017년 9월 ~ 현재 : 글로벌사이버대학교 동양학과 강사
- 관심분야 : 명리학, 천문학, 경학
- E-Mail : samsinang@naver.com

김 기 승 (Ki-Seung Kim)



- 2011년 2월 : KICU대학원졸업 (교육학박사)
- 2014년 2월 : 경기대학교 대학원 직업학과졸업 (직업학박사)
- 2005년 3월~2011년 4월 KICU대학원 교수
- 2012년 3월 ~ 현재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동양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진로교육, 선천적성, 직업상담, 명리학
- E-Mail : kbs4984@hanmail.net